

신경림의 마지막 노래 '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'

발표되지 못한 시 60편
민중시인이 남긴 당부
도중환 시인 해설 엮어



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
신경림
창비

'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/ 하늘을 훨훨 나는
솔개가 아름답다 / 꾸불꾸불 땅을 기는 굽
벵이가 아름답다 / (중략) / 아직 살아 있어, 오
직 살아 있어 아름답다 / 머지않아 가마득히 사
라질 것이어서 더 아름답다 / 살아 있는 것은 다

아름답다' (시 '살아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' 에
서)
'국민 시인' 신경림(1935~2024) 1주기를
맞아 시인이 생전 발표하지 않은 유작을 모은 유
고 시집 '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' (창비)가 출
간됐다. 작고 전 마지막으로 펴낸 '사진관집 이
층' 이후 11년 만의 시집이다.
1956년 등단 이후 줄곧 민중의 삶에 전착해온
신경림 시인은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대의 고
통을 품고 낫은 자리를 지켜왔다.
이번 시집은 시인의 1주기를 맞아 발표되지
못한 유작들과 함께 생전 발표한 시 60편이 담겼
다. 삶과 죽음, 사람과 자연 등 깊이 있는 주제를
특유의 포근하고 쉬운 언어로 풀어낸 시들이다.
굴곡진 삶의 애환을 친근한 시어로 담아내 '민
중 시인'으로 불렸던 시인의 한결같은 시 정신
을 엿볼 수 있다.
신경림 시인의 아들 신병규씨가 아버지의 컴
퓨터에서 쓰여진 시들을 찾아 출판사로 보냈고,



신경림 시인

도중환 시인이 해설을 엮었다. 아직 발표되지 않
은 시 또는 기존에 문예지에 발표했으나 시집에
실리지 않은 시들을 모았다.
시집의 제목은 시 '살아 있는 것은 다 아름다
다'의 첫 번째 행에서 따 왔다. 이 시는 언젠가
끝나는 생명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아름다움
을 찬미한다.
도중환 시인은 "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
면서 그 유한함을 슬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살
아 있는 동안 자기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
보여주는 시"라며 "선생님이 남아있는 우리에
게 주는 마지막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
제목으로 삼게 됐다"고 설명했다.
이 밖에도 노년의 시인이 고단했던 자기 삶을
돌아보며 지나온 길에 아름다움이 있었음을 발
견하는 시들이 실렸다. 순서상 가장 먼저 실린
시 '고추잠자리'가 대표적이다.
'흙먼지에 쌓여 지나온 마을 / 멀리 와 돌아보
니 그곳이 복사꽃밭이었다 // 어둑어둑 서쪽 하

늘로 달도 기울고 / 꽃잎 하나 내 어깨에 고추잠
자리처럼 붙어 있다' (시 '고추잠자리' 전문)
농민들의 한과 고뇌를 담은 시 '농무'와 삶의
애환과 사랑을 노래한 '가난한 사랑 노래' 등 수
많은 애송시를 남긴 신경림 시인은 투병 끝에 지
난해 5월 22일 유명을 달리했다.
1주기를 맞아 시인을 추모하고 그의 발자취를
기억하는 행사도 열리고 있다. 모교인 동국대에
선 지난 15일 '신경림 추모 문학의 밤'이 진행됐
고, 생가가 있는 충주 노은면에선 22일 추모제
와 학술대회 등 '신경림문학제'가 장백문화예
술재단, 신경림문학계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
다.
창비는 이번 유고 시집과 함께 신경림 시인의
첫 시집이자 자사 시집 시리즈 '창비시선' 1호
인 '농무' 특별정판본을 출간했다. 창비는 "'살
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'가 시인이 남기고 간 불
꽃이라면 '농무'는 그가 평생 추구해온 시의 뿌
리"라고 설명했다. 조혜원 기자

5·18 고통과 기억 문학으로 새겨

범현이 작가 '총알의 기억' 출간

"5·18은 현재진행형이다."
광주의 5월은 끝난 적이 없다. 1980년 5월, 계
엄군의 총알 아래 쓰러진 수많은 생명과 그날 이
후에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
야기가 다시금 문학으로 되살아났다. 범현이 작
가의 신간 '총알의 기억' (내일을 여는책)은 그
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
의 목소리를 담은 두 편의 이야기다.
고등학교 3학년 한창 삶의 방향을 그려가야
할 시기에 작가는 오월항쟁을 직접 겪었다. 이후
대학 시절까지 거리에서 싸우고 외쳤던 기억은
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. 그리고 그 아픔은 오
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채,
문장과 그림, 기억으로 남아있다. 미술과 문학,
두 영역을 넘나들며 오월을 기록해온 그는 이번
책을 통해 5·18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님을
다시금 상기시킨다.
이 책은 '총알'과 '태아'라는 강력한 상징을



통해 국가폭력의 무자비함
과 그로 인해 무너진 평범
한 일상의 참혹함을 보여준
다. 작가는 이야기 속 인물
을 통해 남겨진 자들의 고통과 슬픔에 미안하다 말하
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
다. 그 다짐은 슬픔을 넘어
공감과 연대를 향한 발걸음이다.
범현이 작가는 현재 오월미술관을 운영하며
오월미술의 기록과 가치 보존에 힘쓰고 있다. 그
는 예술과 문학을 통해 5·18의 기억을 기록하
고,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 쉽 없이 걸여왔다.
'총알의 기억'은 그 치열하고도 조용한 싸움의
또 다른 결실이다. 범 작가는 2016년 무등일보
신춘문에 '거위의 집'으로 등단했다. 2018년 한
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학창작기금을 받았
고 2019년 목포문학상 본상을 받았다. 미술 예
세이 '글이 된 그림들' (2018), 단편집 '여섯 번
째는 파란' (2020) 등이 있다. 조혜원 기자

남도 정서로 그려낸 삶...시의 깊이 더하다

박준수 시인 여덟 번째 시집
'황금물고기를 보았네' 출간

"커다란 보리수나무 위에서 탐을 향해 날아갈
때/그들은 일제히 신비한 노래를 불렀어요/그
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 자리에 멈춰서서/한동
안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" ('왓 체
디 루엡 사원의 새' 중에서)
박준수 시인이 여덟 번째 시집 '황금물고기를
보았네' (문학들)를 펴냈다. 이번 시집은 박 시
인이 오랜 시간 탐구해온 삶과 시, 현실과 이상,
인간과 자연에 대한 시적 사유가 더욱 깊이 있게
응축돼 있다. 그의 시는 남도의 정서와 함께 서
정의 밀도를 더해가며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조
용한 위로와 성찰을 건넨다.
박 시인의 시는 늘 현실의 아픔과 대면하면서
도 아름다움과 희망, 사랑에 대한 동경을 놓지
않는다. 그는 어느 날 트랙에 실려 어딘가로 이
송되는 나무 한 그루를 목격한다. "봉대로 감싼
뿌리는 먼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/암연 속에서
묵상하듯 웅크리고 있다"고 표현한 장면은 관찰



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묘
사와 함께 깊은 상념을 끌
어낸다. 나무가 떠난 자리,
곧 '빈 구멍이'를 통해 시
인은 생명 있는 것들의 터
전에 대한 의미를 묻는다.
태국 치앙마이 오래된
사원 위에서 날아오르는 새
들의 노래를 듣고, "한동안 황홀한 광경을 바라
보고 있었다"는 시구에서는 현실 너머 이상 세
계에 대한 시인의 동경이 담긴다. "진짜와 가짜
를 구별하기 힘든 경계선에서 오늘도 외로운 양
치기가 되어 피리를 분다"는 '디지털 노마드'의
시구처럼 그의 시는 현실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
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을 품는다.
박 시인은 이사 전날 밤 짐을 챙기며 겪는 정
서의 파장을 시 한 편으로 녹여낸다. "기차 소리
와 무등산 풍경, 구름 사이로 열린 미소를 보내
는 보름달의 순정을/어떻게 챙겨서 가져가야 할
지" 고민하는 시인의 내면은 남도에 대한 애정
과 인간의 기억이 만들어내는 풍경의 밀도를 보
여준다. 조혜원 기자

이번 시집은 언어, 감성, 정신의 삼중주로 빛
어졌다든 평을 받는다.
시의 해설을 맡은 김규성 시인은 "그의 시에
서 언어는 정감 있게 사유를 형상화하는 표현기
재로, 감성은 운율과 내재율을, 정신은 시적 여
정의 버림줄 역할을 한다"며 "남도 시의 소중한
자산"이라고 평가했다. 특히 박 시인의 시에는
'사람'과 '터전'에 대한 애뜻함이 고스란히 묻
어난다. 나무와 새, 노을과 바람 같은 자연물에
투영된 감정은 인간 존재의 고독과 연대를 함께
품고 있다.
박준수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현실과 이상
이라는 이항의 축 위에서 균형을 이루는 시적 긴
장을 유지하며 독자에게 공감의 지평을 넓혀준
다. 삶의 무게를 감싸안으면서도 공극의 아름다
움을 향해 시선을 두는 그의 시는, 묵직한 울림
과 함께 우리 곁에 오래 남는다.
1960년 광주에서 태어난 박준수 시인은 전남
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. 2002년 첫 시
집을 출간하며 작품 활동 시작한 박 시인은 '들
꽃은 변방에 핀다' 외 6권을 출간했다. 조혜원 기자

'몸짱' 돼 볼까...여름 앞두고 '몸만들기' 책 인기

다이어트와 운동 등을 소재로 한 이른바 '몸
만들기' 책들이 여름을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
는 것으로 조사됐다.
20일 교보문고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
월까지 건강 분야 도서의 월별 판매 점유율을 분
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·운동, 트레이닝
과 관련한 도서가 5월부터 수요가 뚜렷이 증가
해 7월에 정점을 찍는 경향을 보였다.
월별로 보면 한여름이 본격화하는 7월에 9.5%
로 이들 도서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, 6월 9.1%,
5월 8.6% 순이었다. 5-7월을 제외하고 가장 높

은 점유율을 기록한 건 12월(8.5%)이었다.
연령별로 보면 30대 여성(19.3%)이 가장 높
은 구매 비중을 보였고, 40대 여성
(15.4%), 30대 남성(12.2%)이 그 뒤를 이었
다.
교보문고는 "웃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을 앞
두고 몸매 관리를 시작하려는 독자들의 움직임
이 반영된 결과"라며 "특히 사회적 활동과 자기
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30-40대 여성들이 건
강과 체형 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독자층"이라고
분석했다. 연합뉴스

나주 출신 김관식 시인 연작시집 '서울 지하철 1호선' 출간

김관식 시인이 22번째 연작 시집 '서울 지하
철 1호선' (서정문학)을 펴냈다.
서울 지하철 1호선을 소재로 한 이번 연작시
집은 △대한민국의 동맥 △구로에서 인천까지
△회기에서 연천까지 △가산디지털단지에서 평
택까지 △수도권을 지나서 등 5부로 구성돼 100
여편의 시를 수록했다.
호남선 고속열차가 출발하는 곳을 그린 '용산

역'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'신도림
역', 그리고 수도권 밖에 있는 '운양온천역' 등
현실적인 공간인 지하철역을 시적으로 형상화
한 점이 눈에 띈다.
김관식 시인은 '시인의 말'을 통해 "수도 서
울의 동맥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
은 수도권 서민들 생활의 일부이며 정치·경제·
사회·문화 모든 생활문화의 복합 공간"이라며

"수도권 생활공간 중 가장 중요한 이동로인 서
울 지하철 1호선을 소재로 연작시를 시도했는데
정보와 시적인 재미를 함께 아우르다 보니 시적
인 효과를 생생하게 살려내지 못했다"고 아쉬워
했다. 그러면서 "시가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는
생각으로 도전한 이번 시 작업이 많은 사람에게
사랑과 공감을 받는다면 작은 기쁨이 될 것이
다"고 말했다. 조혜원 기자

새책 나왔어요

그남자들은 무었에 충성하였는가



1993년 김영삼 정권의
하나회 척결 당시 동아일보
기자로서 군부에 관한 수많
은 기사를 썼던 김재홍 서
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
좌교수의 하나회 분석서.
김 교수는 윤석열이 '한국
가세력'을 운위하고 비상
입법 기구를 구성했던 것은 전두환이 이끌었던
하나회 내란의 모방 그대로였다고 말한다. 수십
년간 군인들이 밝아 온 과거의 역사에 12·3비상
계엄 사태의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는 것이다. 헌
법을 유린하고, 국회를 포위하며, 친위세력과 함
께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근원적인 배경은 하
나회다. 과거 정치군벌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지
배했는지 역사의 치명적인 지점들을 복기했다면
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
의 관점이다. 사이드웨이, 김재홍 지음.

파이트



동화작가 이라야의 첫 청
소년소설. 선교사인 아빠
를 따라 캄보디아에서 자란
17살 하람이 격투기 선수
라는 꿈을 찾아 한국으로의
가출을 감행하는 이야기
다. 다른 사람들과 챙기느
라 바쁜 아빠, 딸에게 눈길
조차 주지 않는 엄마 사이에서 외로운 시간들을
견뎌 왔던 하람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과 맞서
는 모습이 애뜻한 감동을 전한다. 외투 한 벌 없
이 혹독한 한국의 추위를 버티는 하람을 이웃들
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. 각자의 방식으로 다정
한 마음을 내준다. 상처를 다독이며 가족의 그늘
을 극복하는 길을 열어 주는 대목에서 작가의 세
심함이 돋보인다. 막막한 순간에도 스텝을 멈추
지 않는 하람이, 외롭고 혼란한 시기를 견디는
이들에게 울림을 전한다. 창비, 이라야 지음.

실배를 성공으로 바꾸는 주식투자의 기술



'부자아빠' 정재호의 40
년 실전 투자 노하우를 총
정리했다. 주식 투자자의
가장 큰 고민은 시장을 예
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.
최근에도 미국발 관세 전쟁
의 영향으로 시장이 출렁였
고 투자자들은 크게 당황하
며 혼란에 휩싸이는 일이 있었다. 이 책은 40년
간의 실전 경험에서 우리나라 주식투자 기술이
전부 담겼다. 시세의 원리를 파악해 매매 타이밍
찾는 법, 상승세를 탈 종목을 선정하는 법, 가격
이 아닌 추세를 보고 매수매도하는 기법뿐 아니
라 성공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장기적 안목을
배울 기회다. 언제 어떤 종목을 사고팔아야 할지
모르는 초보 투자자부터 투자 실력을 한 단계 업
그레이드하고 싶은 투자자까지 실질적인 도움
을 받을 수 있다. 프런티어지, 정재호 지음.

어니코치의 자연식물식



자연식물식 전도사 어니
코치가 소개하는 엄증은 줄
이고 면역력은 높여줄 자연
식물식 레시피북. 온갖 가
공식품이 가득 포함된 식사
가 흔한 요즘, 건강하지 못
한 음식과 생활습관으로 인
한 비만, 피부병, 심혈관질
환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
다. 어니코치의 자연식물식은 간단하다. 복잡하
거나 번거로운 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. 최대한
오래 식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레시피 단계 또한
간단하다. 올바르게 건강한 재료 고르는 법, 식
재료를 바르게 손질하고 보관하는 법은 물론 자
연치유식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받은
다양한 조리 도구와 요리 습관을 소개한다. 자연
치유식을 통해 단순하면서 확실한 더 나은 일상
을 만들 수 있다. 다산라이프, 어니 코치 지음.

친구가 상처 줄 때 똑똑하게 나를 지키는 법



16년 차 초등학교가 알
려주는 똑똑한 친구 관계
사용 설명서. 아이를 처음
학교에 보낸 부모는 혹시
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지
못하거나 못된 친구에게 괴
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곤 한다. 실제로 사회생
활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친구 관계는 결코 만만
치 않은 과제다.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받을 상
처를 막아 줄 수 없고, 아이가 겪게 될 갈등과 화
해 과정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. 친구 관계의 어
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일은 아이의 성장
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이
다. 친구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가 마음과
친구 관계를 돌 다 지킬 수 있도록 또래 갈등 상
황을 10편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상황마다 적용
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방법을 담았다. 한빛에
듀, 이현아 지음.